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2010.12, pp.91~106

김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에 대한 고찰

—순수 합일과 갈등의 이미지

A Study on the Internal Aspects Appearing in Kim, Youngrang's Poetry

김혜영(광주대 강사)

차 례

- | | |
|--------------------|------------|
| 1. 서론 | 2) 갈등의 이미지 |
| 2. 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 | 3. 결론 |
| 1) 순수 합일의 이미지 | |

1. 서론

본 연구는 1930년대 <시문학>파의 핵심 인물인 김영랑 시에 나타난 이미지들이 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축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영랑의 시세계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에서 이미지는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작품의 미적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지란 시각적 표상을 의미하므로 언어에 의해서 마음속에 재생되는 그림을 말하며, 문학적 표현으로 인해 독자의 감각적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 이미지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며 시적 장치이다. 그동안 영랑 시에 대한 연구 중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동시대의 시인인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등의 시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러나 영랑 역시 새로운 시적 언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영랑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 내적 상상력의 표현인 이미지와 섬세한 언어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시어는 작가의 사상, 개성, 작품의 미적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미지에 대한 검토는 작품의 주제 및 작가가 지니고 있는 사상의 기저를 파악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랑 시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 영랑의 시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축하여 시세계를 형상화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

영랑의 시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있다. 이것은 다른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이미지들과 어우러져 영랑의 창조적 시세계를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묶어서 고찰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영랑의 시에 나타난 이미지는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시인의 시 의식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영랑이 살았던 시대적 현실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변화된 영랑의 시 의식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1) 순수 합일의 이미지

영랑의 시에서 반복되는 이미지 중 여러 가지 자연의 소재 중 '강물'과 '하늘' 이미지가 빈번히 드러난다. 영랑은 '내 마음'의 세계를 '강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을 담고 있다. 이때의 이미지는 순수 서정성에 기초한 내부 합일의 의미를 지닌다.

(1) 강물

영랑의 시에는 물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¹⁾ 문학작품에서 물의 상징적 차용은 이미 하나의 원형이 되어버렸다. 영랑의 시에서 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물이나 풍경으로서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물은 ‘강물’이라는 구체적인 상관물로 시에 등장한다. 이처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어는 작품 전체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 시인의 시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강물’의 이미지는 『시문학』 창간호에 첫 작품으로 발표된 「동백넙에 빗나는마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꺾이는 강물이 흐르네
 도쳐오르는 아침날빛이 빨질한 은결을 도도내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피스줄엔 듯
 마음이 도르도른 숨어있는곳
 내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꺾이는 강물이 흐르네

—「동백넙에 빗나는마음」 전문

위의 시에서 강물은 강물 그 자체가 아닌 화자의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이다. 따라서 이는 “일상적 생활의 테두리에서 파악된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의 마음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상징적 대상으로 제시”²⁾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영랑 시의 순수 서정성은 물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의 중점 이미지는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다.³⁾ 흐르는 강물은 영랑에게 어떤 의미일까? 시에서 ‘마음이 도르도른

1) 영랑의 시 총 87편 중 57편에서 물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2) 신동욱, 『우리 시(詩)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p.213.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숨어있는곳'이라고 표현한다. 숨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현실세계에 있지 않고 내면의 세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는 현실 속에서의 갈등을 피해 자신만의 마음 속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때 누리는 평화와 아늑함이 바로 '내마음의 어딘가 한쪽에' 끝없이 흐르는 강물인 것이다. 이는 영랑이 외부세계에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적 생명력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무형의 '마음'을 여러 섬세한 감각적 수식어로 형상화함으로써 외부 세계와는 차단된 내면 세계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즉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는 내적 생명력의 확인이라 할 수 있다.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가치
 풀아래 우슴짓는 샘물가치
 내마음 고요히 샘물가치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오날하로 하늘을 우러르고십다

새악시불에 떠오르는 붓그림가치
 詩의 가슴을 살프시 져는 물결가치
 보드레한 에메랄드 알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십다.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전문

위의 작품의 배경 계절은 봄이다. 영랑의 시에 드러난 계절이미지는 거개가 봄에 편중되어 있으며 편수 또한 전체 시 작품 가운데 많은 양을 차지한다. 주지하다시피 봄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깨우고 모든 생명들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러한 봄날의 물은 앞에서 살펴 본 물의 이

3) 1949년 발행한 『永郎詩選』에서 시의 제목이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로 바뀌는데 이는 중심 이미지가 흐르는 강물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에 대한 고찰 5

미지와 같이 충만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봄의 물은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에 대한 확인이며 희망의 상징이다. 위의 시에서 우리는 봄을 맞이하는 영랑의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다. 영랑 시 도처에 나오는 봄의 이미지는 영랑이 사랑했던 계절이기에 설렘의 표현과 생명력이 가득한 시어들로 표현되고 있다.⁴⁾ 즉 '강물'은 봄을 맞이하는 설렘을 나타내는 '햇발, 샘물, 물결'이나 '소색이는, 웃음짓는, 떠오른' 등의 이미지등과 만나 생명력 넘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강물' 이미지는 '봄'의 이미지와 만나 생명력이 충만한 내면을 형상화함으로써 영랑은 순수 서정의 세계를 구축한다.

(2) 하늘

앞서 살펴본 '강물'의 이미지가 '내마음'의 충만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러한 '내마음'이 지향하는 세계는 '하늘'이라 할 수 있다. 영랑의 시가 정감의 세계나 자연의 밝은 세계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내마음'에서 기조를 이루고 있는 정서는 우울하고 비관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슬픔과 비애가 함께 드러난다. 영랑은 현실의 괴로움과 갈등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하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정화하고자 하였다. 영랑의 시에서 하늘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인 하늘이 아니라 꿈과 이상이 있는 동경의 세계인 셈이다.

어딴에 바로누어
아슬한 푸른하날 뜻업시 바래다가
나는 이것습내 눈물도는 노래를
그하날 아스하야 너무도 아스하야

4) 김숙, 「김영랑 시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94.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이몸이 서러운줄 미리서 아랏거니
 마음이 가는우슴 한때라도 업드라냐
 아슬한 하늘아래 귀여운맘 질기운맘
 내눈은 감기엿대 감기엿대

-「어덕에 바로누어」 전문

하늘과 서러운 내 마음, 곧 지상적 존재로서 분리된 화자는 지금 ‘언덕에 바로누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언덕에 누워 하늘만 바라본다는 것은 화자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세계로부터 분리된 자아가 이상(理想)의 세계를 동경하여 동일시를 꿈꾸는 낭만적 자아의 행위인 것이다. 우주의 존재로서 우주와의 일체를 꿈꾸는 인간 본원의 순수 동경이며, 자신을 갱신하는 존재로서 시적 자아의 순수의 행위이다. 특히 ‘아슬한 푸른하늘’을 ‘뜻업시’ 바란다는 ‘뜻업시’에서 개인적인 목적조차 부재한, 혹은 판단중지의 상태로써 절대적 순수의 세계에 몰입된 자아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접습내 눈물도는 노래를/그하날 아슬하야 너무도 아슬하야”처럼 그 하늘은 너무도 아슬하여 혹은 너무도 지고한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의 눈물’조차 잊게 하는 힘의 세계이다. 내 마음의 슬픔이 내면에 점철되어 시적 자아의 개인적 슬픔에서 멈출 수 있지만 자연으로, 우주로 확대된 자아의 순수지향은 개인적 슬픔을 초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때 마지막 연의 ‘내눈은 감기엿대 감기엿대’에서 눈물 도는 지상의 노래는 더 이상 불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하늘은 생명력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광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을 통해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순수 서정 세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김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에 대한 고찰 7

눈물속 빛나는보람과 우슴속 어둔 슬픔은
 오직 가을하날에 떠도는 구름
 다만 후젼하고 줄대엿는망므만 예나이제나
 외론밤 바람긔찬 별을 보랏습니다

-「눈물속 빛나는 보람과」 전문

별의 이미지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주는 빛이다. 또한 잃어버린 순수와 꿈을 갈망하는 맑고 밝은 세계를 지향한다. 물론 위의 시에서 별의 이미지는 쓸쓸함을 갖고 있다. 더욱이 ‘찬별’은 우수에 찬 현실을 벗어나게 하기에는 나약함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이때의 별빛은 현실의 어두운 세계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불빛이 아닌 나약한 불빛에 불과하다. 그러나 화자는 어둡고 외로운 밤의 현실 속에서 별을 지향하면서 밝음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이처럼 영랑은 현실에서 오는 괴로움을 잊고 ‘하늘’을 통해 밝은 세상을 꿈꾼다. 그것은 영랑이 추구하고자 했던 꿈과 희망이 있는 이상적인 세상인 것이다.

이처럼 영랑의 시는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외부 현실 세계는 차단한 채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감각적 시어와 비유를 통한 신선한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생명성의 확인과 순수함의 추구, 초월적 세계에 대한 합일 지향의 이미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2) 내면적 갈등의 이미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랑은 현실을 차단하고 오직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 혼자의 세계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세계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내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순수 서정의 합일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에서 자아는 내면적 갈등을 일으킨다. 혼자만의 공간인 내면 세계를 노래하던 영랑은 외부 현실인식을 드러내 보이면서 갈등의 이미지를 발산한다. 영랑의 내면적 갈등이미지는 순수 서정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외부 세계의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여 나타난다. 이는 '새암', '눈물' 등으로 대표되는 갈등의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다.

(1) 새암

영랑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는 이미지로는 우선 '새암'의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새암은 영랑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동시에 하늘을 비추고 있다. 이는 순수 서정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담고 있다.

마당앞

맑은새암을 드러다본다

저 김흔 땅밑에

사로잡힌 너 잇어

언제나 머니 하날만

내어다보고 계심가터

별이 총총한

맑은 새암을 드러다본다

저 김흔 땅속에

편히누은 너 잇서

이밤 그눈 반작이고

김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에 대한 고찰 9

그의것몸 부르시 가터

마당앞

맑은새암은 내령혼의얼굴

-「마당앞 맑은새암을」 전문

시의 중심이미지는 ‘새암’이다. 고여 있는 ‘새암’의 이미지는 앞에서 살
펴본 흐르는 ‘강물’의 생명력을 상실한 대신에 영혼의 깊이를 획득하고 있
다. 화자는 새암을 통해서 땅속의 닳을 보고 있다. 화자는 이 새암을 통해
서 또 다른 나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그것은 곧 시인의 내면, 영혼의 모습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새암은 시인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춰볼 수 있는 마
음의 거울로 구상화하는 것이다. 영랑은 땅 위의 공간을 부정적 현실로 인
식하고 물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새암의
이미지는 땅과 하늘이라는 대립적 구조의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도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영랑이 땅속 밑에 숨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괴로운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풀 아래 작은 샘

언제나 흰구름 떠가는 높은하늘만 내어다보는

수풀 속의 맑은 샘

넓은하늘의 수만별을 그대로 총총 가슴에 박은 작은 샘

드래박을 쏘다져 동우갓을 깨지는 찰란한 떼별의 훑는소리

얼켜져 잠긴 구슬손결이

웬 별나라 휘흔들어버리어도 맑은 샘

해도 저물녘 그대 종종거름 흰 듯 다녀갈뿐 샘은 외로워도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그밤 또 그대 날과 샘과 셋이 도르도르
 무슨 그리 향그런 이야기 날을 세었나
 샘은 애끈한 젊은꿈 이제도 그저 지냈으리
 이밤 내 혼자 내려가볼이거나 내려가볼거나

—「수풀 아래 작은 샘」 전문

위 시에서도 샘은 시인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 샘에 비친 달, 별과 같은 순결함은 자신의 내면, 영혼을 담고 있는 순수 서정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지상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영랑은 그 샘으로 '나려가볼까'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부정성이 강화된 형태이다. 영랑은 고여 있는 샘의 중심에 하늘을 창조하고 그 곳에 자신의 이상을 담는다. 고여 있는 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과 만나고, 자신의 영혼이 지켜지기를 하늘을 통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날 가졌던 젊은 꿈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좌절되고 더욱 더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

즉 '새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 부정적 현실과 이상 속에서 갈등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새암'의 이미지는 영랑의 내면세계에 대한 긍정과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이 공존하는 갈등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다.

(2) 눈물

영랑은 앞서 살펴본 부정적 외부 세계와 갈등 속에서 빗어지는 슬픔과 절망을 '눈물'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이때 '눈물'의 이미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눈물에 실려가면 山길로 七十里

김영랑 시에 나타난 내면 양상에 대한 고찰 11

도라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서울이千里로다 멀기도 하련만
눈물에 실려가면 한거름 한거름

뱃장우에 부은 발 쉬일가보다
달빛으로 눈물을 말릴가보다
고요한 바다위로 노래가 떠간다
서름도 붓그러워 노래가 노래가

-「눈물에 실려가면」 전문

위 시에서 ‘눈물’은 지향점이 없는 흐름의 이미지와 수직 하강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시에서 느껴지는 슬픔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러한 슬픔에 가득 찬 마음을 ‘눈물’에 실려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부정적 외부 세계를 인식하면서 빚어지는 내면적 갈등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시에서 ‘무덤’의 이미지는 눈물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내면적 비애를 극대화한다. 삶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무덤을 설정하여 거기에 찬바람까지 몰리는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것은 외부세계와의 부딪침에서 빚어진 슬픔이며 허무함이라 할 수 있다.

물보면 흐르고
별모면 또렷한
마음이 어이면 늪으로

흰날에 한숨만
끝없이 떠돌든
시절이 가엽고 멀어라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안쓰런 눈물에안겨
 흐트넛 싸힌곳에 빗방울드듯
 느낌은 후줄근히 흘러흘러가것만

그밤을 홀로앓으면
 무심코 야원불도 만져보느니
 시들고 못뉘인꽃 어서떠러지거라

-「물보면 흐르고」 전문

위의 시에서 ‘물’, ‘별’, ‘마음’은 화자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며 동일한 의미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모두 흐름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마음은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니 몸이 늙어감에 따라 마음까지 늙어 감을 함탄하고 있다. 시에서 ‘눈물’은 지나가버린 과거에 잠긴 화자의 쓸쓸한 심사를 담고 있다. ‘시들고 못뉘인꽃 어서떠러지거라’에서 ‘시들고 못뉘인꽃’은 젊은 시절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보지 못하고 패배한 자로서 화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꿈은 좌절되고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한탄에서 빗어지는 비애의 정서는 눈물이 되어 야원 불을 타고 흐른다. 물론 ‘눈물’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눈물’의 이미지는 내면적 갈등의 일시적 해소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영량은 외부 현실인식을 드러내 보이면서 내면적 갈등의 이미지를 발산한다. 그것은 소극적이거나 ‘눈물’ 이미지로 그려지고 감정의 배설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영랑의 시 속에 나타나는 몇몇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이 구축하는 의미를 고찰해봄으로써 영랑의 시세계의 지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순수 서정의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이미지를 순수 합일의 이미지, 내면적 갈등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영랑은 '강물'과 '하늘'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로 자신의 순수 서정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영랑에게 있어 자연은 단순한 시적 소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와 지향하는 바가 투사된 이미지인 것이다. 반면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순수 서정의 내면세계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와의 부딪힘 속에서 내면적 갈등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그것은 '새암', '눈물'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새암'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과 대비시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암울했던 외부 세계의 내면적 갈등을 '눈물'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갈등의 이미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치열한 대응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지만, 미약하게나마 영랑만의 현실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영랑의 시가 단지 순수 서정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랑의 시가 현실 도피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는 옳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영랑이 내면적 자아에서 벗어나 나아가 외부 세계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영랑시에 나타난 음악성과 리듬성에만 치우쳐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영랑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영랑의 시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참고문헌

김숙, 「김영랑 시 연구」, 카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용직, 『한국현대시연구』, 일지사, 1982.

신동욱, 『우리 시(詩)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정효구, 『한국현대시사의 쟁점』, 시와시학사, 1992.

최동호,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식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1.

허윤희 주해, 『원본 김영랑 시집』, 깊은샘,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l Aspects Appearing in Kim, Youngrang's Poetry

—Pure Unity and Conflict Image

Kim, Hye 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orientation of Youngrang's poetic world by considering the meaning constructed in images appearing in his poetry.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mages made in the course of responding to the external world from the pure lyric world were divided into a pure unity image and an internal conflict image for analysis.

Youngrang sings his own pure world of lyric with the image of nature such as 'the river' and 'the sky'. For Youngrang, nature is not a poetic material, but an image which projects his internal world and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when he recognizes reality and the internal world of pure lyric is crashed into the external world of reality, an internal conflict image emerges. It can be examined through images such as 'saeam(spring)' and 'nunmul(tears)'. He shows the recognition of the external world by contrasting with his soul through 'saeam' and attempts to overcome his gloomy internal conflict with the external world through 'nunmul'. Although such a conflict image is depicted as a feeble and passive one which cannot find keen response to the external world, his own way to respond to

1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0호

reality can be seen even if weak. Based on this, it is suggested that his poetry does not stay only in the pure world of lyric, but recognizes the external world.

주제어 : 김영랑(Kim, Youngrang), 내면양상(Internal aspects), 순수합일(Pure unity), 갈 등 이미지(Conflict image)

| | |
|--------|-------------|
| 논문 접수일 | 2010.11.10. |
| 논문 심사일 | 2010.11.25. |
| 게재 확정일 | 2010.12.10. |